

2. 오적암살과 전남 동부지역

1) 기산도의 의열투쟁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일반 국민들은 이제 일제의 망국노가 되었다고 슬퍼하였다. 당시의 격앙된 상황은 『황성신문』 1905년 11월 20일자에 실린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란 논설에 잘 나타나 있다. 장지연은 그의 논설에서 매국노들이 사천 년 강토와 오백 년 종사를 일제에 넘겨주었으며, 이천만 동포를 모두 일본의 노예로 전락시켰다고 애달파 하였다. 매국노는 당시 을사늑약의 체결에 동의한 이른바 을사오적을 말한다. 즉, 이완용을 비롯한 이근택·박제순·이지용·권중현이 그들이다. 바로 이들이야말로 개인의 영달과 사리사욕을 위해 국가와 민족을 일제에 팔아먹은 매국노였던 것이다.

따라서 나라를 팔아먹은 오적을 이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응징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오적암살은 대체로 전남인들이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적 중에 군부대신 이근택이 가장 먼저 습격을 당하였다. 1906년 2월 16일 밤, 그는 기산도(奇山度) 등의 칼에 무려 열세 곳이나 난자당하였다.¹⁾ 그를 단죄한 기산도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창평의 의병장 고평순의 사위이며, 장성의 의병장 기우만과 기삼연의 가까운 친족이었다.

이근택은 ‘오적의 우두머리’로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았다. 또한 그는 주한일본군 사령관 장곡천호도(長谷川好道)와 결의형제를 맺었으며, 이등박문의 양아들로 행세하였다. 더욱이 그는 마치 일본인이나 된 것처럼 일본 신발에 일본차를 타고 다니며 거들먹거렸다. 이러한 그를 군대와 경찰이 엄중히 경호하였다. 따라서 기산도 등이 오적을 처단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기산도 등은 이근택을 응징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좀처럼 틈이 보이지 않자, 이들은 이근택의 집으로 직접 쳐들어가기로 하였다. 당시 이근택의 집은 철저히 경비되고 있었다. 예컨대, 이근택의 침실 주위에는 군인 6명과 순검 4명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일제의 헌병대와 순사분과소와도 비상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기산도 등의 일행은 감쪽같이 거사를 결행하였던 것이다.

이근택이 애첩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들은 소리 없이 침실에 들어가 칼을 휘둘렀다. 기산도 등의 칼놀림에 이근택의 고통스런 신음소리가 밖으로 새었다. 마침 침실 곁을 지나던 가복 김중협(金鍾協)이 그 소리를 듣고 침실에 뛰어들었다가 기산도 등이 휘두른 칼에 네 곳이나 찔려 쓰러졌다. 이날 거사에 참여한 사람은 기산도와 구완희(具完禧), 이세진(李世鎭) 등이었다. 훗날 기산도는 다른 의열투쟁에 연루되어 체포되었으나, 구완희와 이세진은 무사히 피신하였다. 당시 기산도는, “오적을 살해하려는 사람이 어찌 나 혼자이겠는가. 탄로된 것이 그저 한스러울 뿐이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그는 나주 출신의 박종섭(朴宗燮) 등 11명과 함께 재판관을 받았는데, 2년 반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당시 재판장은 이완용의 이복형 이윤용(李允用)이었다.

얼마 후 석방된 기산도는 의병전선에 뛰어들었다. 유생에서 계몽운동으로, 의열투쟁에서 다시 의병항쟁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그는 고향인 전남으로 돌아와 의병투쟁에 나섰다. 다리에 부상을 당하였다. 1910년대 중반에 그는 고흥군 도화면에 내려와 서당을 개설하여

1) 『軍大被刺顛末』, 『황성신문』 1906. 2. 19.

제자를 양성하다 3·1운동을 맞았다. 그후 그는 임시정부에 참여하기 위하여 진남포까지 갔다가 끝내 일본 경찰의 감시를 뚫지 못하였다. 고향에 되돌아와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활동하던 그는 다시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동지를 배신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혀를 잘라버렸다. 5년 후에 풀려난 그는 여기저기 전전하다 1928년에 장흥의 어느 사랑방에서 죽음을 맞았다. 그는 ‘유리개걸지사(流離丐乞之士) 기산도지묘(奇山度之墓)’라고 쓴 나무 비를 세워달라고 유언하고서 조용히 운명하였다. 그의 몸과 마음을 오직 국권의 회복과 조국의 독립에 바친 것이다.